



제5회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변화된 문화지형도와 공공성
_공공예술과 대중문화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PROGRAM BOOK

Session I

새로운 문화지형도, 공공미술

New Cultural Topography, Public Art

Speaker

김성호

Kim Sung-Ho

•
한국 |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Korea | Artistic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 現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총 감독

• 前 여주미술관 관장

•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 the former director of Yeosu Art Museum • Museum Berggruen,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일상의 대중문화와 공공미술

Popular Culture in Everyday Life and Public art



김성호

Kim Sung-Ho

오늘날 일상은 대중문화의 물결 속에서 지속한다. 동시대, 복잡다기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 문화는 많은 부분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고 반복되는 대중문화가 차지한다. 생활계를 잠식하는 이러한 미디어는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전 세계를 복수의 대중문화로 연결하거나 잠식시키고 그 속에서 현대인이 삶을 지속하게 만든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언급했던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살롱이나 커피 하우스는 오늘날 SNS와 같은 쌍방향 미디어로 옮겨 와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위상을 공유한다. 이러한 미디어 속에서 현실과 정치에 대한 엘리트적 비평 담론이나 자잘한 가십 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중문화의 담론은 서로 뒤섞이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의 영역마저 뒤섞어 놓는다.

다른 예술의 영역도 별반 차이가 없지만, 동시대 미술은 이미 이러한 대중문화적 담론과 서로 몸을 뒤섞은 지 오래다. 1960년대 폭발적인 대중문화와 맞물려 유행했던 영미의 팝아트나 프랑스의 누보레알리즘과 같은 대중 지향의 미술 언어는 일상과 별리된 채 순수 예술의 세계를 강조하던 이전의 엘리트

미술의 위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르네상스 이래로 천재의 개념과 연동하면서 일상과 별리된 채 순수 예술의 세계를 공고히 했던 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이다.

20세기 중반은 비로소 '일상=미술'의 도식화가 기정사실처럼 받아지는 시기였다. 단토(A. Danto)가 1984년 그동안 예술을 설명하는 거시적 내러티브가 사라진 것으로 살피면서 '예술의 종말'을 선언했던 근본적 성찰에는 일상과 미술의 '식별 불가능성(indiscernibility)'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슈퍼마켓의 브릴로 박스와 전시장에 있는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 사이의 차이 없음이 그것이었다. 오늘날은 오브제 아트와 팝아트의 언어를 미술의 언어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일상=미술'이라는 도식이 더는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보드리야르(J. Baudrillard) 역시 '일상 속 미적 과포화'의 상태를 우려하면서 예술의 무가치를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의 염려처럼 예술이 일상과 같아졌기에 예술의 가치는 이제 무의미해진 시대가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미술은 이제 일상과 다를 바 없으며 '미술이 일상이고 일상이 미술'인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태양 아래 새것이 없다"는 성서의 아포리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처럼 오늘날의 미술은 개인의 고유한 세계를 담은 독창성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일상에서 소비되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면서 패러디와 패스티시를 조형의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미술은 대중주의와 쉽게 접목한다. 지배자의 담론을 국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하던 기념비와 같은 공공미술의 시작으로부터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장식품과 같은 공공미술로 전개되는 시기를 거쳐 오늘날은 일상의 영역으로 침투한 친근한 대중문화를 공공미술에 소환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공공미술의 현장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가? 미디어

어에 등장하는 인기 콘텐츠나 가십거리가 아이콘처럼 재등장해서 일상의 공공 공간에 자리하거나 미술가에 의해 재현된 인기 스타의 형상이 우상처럼 미술관 안으로 잠입하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무대 의상처럼 반짝거리거나 초콜릿처럼 달콤하거나 추잉 껌처럼 가벼운 대중주의 미학 안에서 작동한다. 오늘날 대중문화의 얇은 감수성에 호소하는 '깃털처럼 가벼운 형식과 사탕처럼 달콤한 내용'의 공공미술이 도처에서 발견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일상 속 공공미술은 대중문화의 아이콘과 같은 친근한 내용으로 대중에게 다가선다는 취지로 지나친 대중주의에 매몰된 채 조악한 조형미의 공공미술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중의 기호와 눈높이를 맞추는 이러한 공공미술은 도시의 공간을 일순간에 '대중주의화'함으로써 미술의 자율성 미학을 유행과 같은 속성으로 변질시킨다.

여기서 대중문화적 코드를 접목한 공공미술에 당면한 미술 수용과 미술 소비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간의 공공미술이 기념비적인 매스와 불륨으로 엘리트 미술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공공미술은 많은 부분 대중문화 코드가 접목한 친근한 형식의 미술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미술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기도 한다. 그것은 때로는 예술적 메시지 수용의 문제보다 대중적 이미지 소비의 문제로 전환되는 경향과 맞물리기도 한다. 예술의 맥락과 관계하는 비평적 미학의 속성보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상업주의 속성이 작동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공공미술의 대중주의는 자신의 예술 세계에 천착하는 예술가보다 돈벌이에 나서는 공공미술 작가를 어렵지 않게 양산한다. 게다가 1960~1970년대 이래 관성적으로 제도화된 부패한 공공미술 생산 시스템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카르텔처럼 작동하면서 공공미술의 부정적 면모를 고스란히 계승하기도 한다. 예술가들과 결탁해서 엘리트 미술의 공공미술화를

촉발했던 기업형 생산 매개자들이 대중문화 생산자들을 새로운 협력자로 끌어들이며 '천편일률적인 형식의 유사한 조형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오늘날 공공미술이 당면한 화두가 있다면, 이러한 '지나친 대중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특히 대중문화를 공공미술의 영역에 접목하는 시도에 있어서도, 미술이 지니는 창의성과 실험성 그리고 '낯섦'을 함유하는 아방가르드적 미학을 방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미술은 대중의 기호와 수요를 위한 '맞춤형 가구'가 아니라 때로는 대중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대중에게 언어적 사유로는 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사회 비판적 성찰마저 담는 '불편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이 대중적 콘텐츠를 '완성된 조형적 결과물'로 생산하는 일에 매진하는 이상, 오늘날 대중문화와 공공미술의 접점에 대한 조롱과 비난에 가까운 비판적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미술로부터 변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 유형의 공공미술은 대중문화와 접목하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위상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이것은 엘리트 미술로부터 대중적 미술로 자리 이동하는 현대 미술과 공공미술의 장에서 매우 주요한 변화의 지점이다. 특히 고급문화 수용에 있어서 대중화를 주창하는 '문화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의 개념을 벗고 일반 대중 혹은 국민이 문화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개념인 '문화 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가 주창된 이래, 이제 공공미술은 '예술의 민주화'로부터 '예술 민주주의'로 이동한 지 꽤 오래되었다. 공공미술의 생산 주체가 미술가뿐만 아니라 그간의 미술 소비 주체였던 대중과 자리를 함께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드웨어로 구축되어 경직된 공공미술 안에, 관객의 참여와 소통을 도모하는 움직이는 미술, 시간을 투여하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미술, 최종

적으로 작품은 사라지고 의미만 남는 개념적 미술, 공공미술이 자리하는 맥락에 대한 자료 조사와 성찰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리서치 아트 등이 요청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가 생산한 이미지의 기념비적 재연에 집중하기보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내러티브를 담은 커뮤니티 아트 유형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공공미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공조각과 커뮤니티아트,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등 다양한 유형과 담론이 넘치면서 그것에 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병존한다. 특히 공공미술에서 '일상의 대중화'라는 것이 이론보다 실제가 앞섰던 것인 만큼, 대중문화에 대한 심층과 저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대중문화와의 접점에서 오늘날 공공미술이 '지나친 대중주의'에 집중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디어로부터 생산되는 대중문화의 유형적 이미지에 골몰하기보다 대중이 삶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문화와 소수적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만 할 것이다.

Today, daily life continues amidst the wave of popular culture. For people who live a complex life in these present times, most parts of culture are dominated by popular culture that is reproduced and repeated through media. This media encroaching on the living world connects the whole world, which is physically distant, with multiple popular culture, and sustains media dependability of modern day people. Salons and coffee houses as public spaces, mentioned by J. Habermas, move into interactive media such as SNS today, and share their status as "new public forums." In this media, elitist criticisms of reality and politics as well as popular culture discourse that produce and consume small gossip are mixed with each other, mixing the areas of experts and non-professionals, and even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Other areas of art are not much different, but contemporary art has long been mixed up with this popular culture discourse. Popular-oriented art languages, such as pop art in Britain and USA as well as Nuborealism in France, which were popular in the 1960s in line with explosive popular culture, have completely reversed the status of the former elite art, which emphasized the world of authenticity, separated from everyday life. Since the Renaissance, the era of solidifying the world of pure art separated from everyday life, while interconnecting with the concept of genius, has come to an end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was the time when the schematic diagram of "daily life = art" was accepted as established fact. In 1984 Danto was aware of the problem with the "indiscernibility" between daily life and art. With fundamental reflection, he declared the "end of art" by looking at the disappearance of macro narratives that has described art before. That wa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Brillo Box in the supermarket and Andy Warhol's Brillo Box in the exhibition. Today, the "daily life = art" formula, which accepts objet art and pop art's language as art's language without any doubt, is nothing new. Didn't J. Baudrillard also contend the worthlessness of art out of concern about the state of "the aesthetic overpopulation in everyday life"? Like his concerns, the value of art may have become meaningless now that art has become like everyday life.

Art is not different from everyday life, and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art is everyday life and everyday life is art. As the biblical apocalypse of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eaches us today, today's art does not pursue only originality that embodies an individual's unique world. While actively reproducing popular culture that is consumed in everyday life, parody and pastiche are sometimes used as a formative strategy.

Under these circumstances, public art easily combines with popularism. From the beginning of public art, such as a monument, which was used to guide and promote the discourse of the ruler to the public, to the time when it was developed into public art, such as decorations that create sculpture parks, today, it has reached the point of summoning friendly popular culture that has penetrated into the realm of everyday life to public art.

How is popular culture penetrating the scene of public art today? Popular content or gossip that appears in the media reappear like icons that sit in everyday public spaces, or the image of a popular star reproduced by an artist infiltrates into the museum like an idol. It usually works in popularist aesthetics that glitters like stage costumes, or as sweet as chocolate or as light as chewing gum. Public art that has "light format like a feather and sweet content like a candy," which appeals to the shallow sensibility of popular culture today, can be seen everywhere. Today, public art in everyday life is imbued with excessive popularism with the intention of reaching out to the public with friendly contents like icons of popular culture, and is blundering in producing public art with a shoddy aesthetic value. This public art, which aligns with the public's taste and standards, instantly make the city space 'populist', turning the aesthetics of art's autonomy into an attribute of trend.

Discussion on the acceptance and the consumption of art that public art, which incorporates popular culture codes, is facing is essential. If public art has been to introduce elite art to the public with monumental mass and volume, today's public art degrades its status by focusing on introducing familiar forms of art that incorporate popular culture codes to the public. This sometimes coincides with a tendency to shift to a problem of consuming public image rather

than a problem of accepting artistic messages. This is why commercialism that meets preferences at the level of public standards works rather than the critical aesthetics associated with the context of art.

As such, popularism in public art easily produces public art artists who try to make money rather than artists who are deeply immersed in their artistic world.

In addition, since the 1960s and 1970s, the systematically institutionalized and corrupt public art production system has taken control of hegemony and acted like a cartel, inheriting the negative aspects of public art. Corporate production mediators who collaborated with artists and caused the publicization of elite art, sometimes attract popular culture producers as new collaborators and create "similar results in a uniform format."

If there is a topic that public art is facing today, it is to overcome this "excessive popularism." In particular, attempts to incorporate popular culture into the realm of public art must not abandon the avant-garde aesthetics that contain the creativity, experimentation, and "unfamiliarity" of art. This is because art is not a "tailored furniture" for the public's tastes and demands, but an "uncomfortable thing" that sometimes makes the public uneasy and sometimes contains social critical reflections that could not easily be achieved by verbal discourse. As long as public art is devoted to producing popular content as a "completed formative outcome," critical discussions, close to ridicule and criticism, on the interface between popular culture and public art today will continue.

In this regard, the changing public art type of software-oriented community art from hardware-oriented public art makes us reflect on the status of new public art that blends with popular culture.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of change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and public art, which moves from elite art to popular art. It has been quite a long time since public art moved from "democratization of art" to "art democracy," especially since the concept of "démocratisation culturelle," which advocates popularization in the acceptance of high-end culture was abandoned, and the idea of "démocratie culturelle" in which the general public or the people are the active main players in cultural production was advocated.

We are now facing an era in which the production entity of public art is not only artists but also the public, who has been the consumer of art.

Within the rigid public art built on hardware, moving art for audienc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 art headed for completion while administering time, conceptual art that eventually disappears but meaning remains, and research art continually carrying out data research and reflection on the context in which public art is located, need to be requeste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monumental reenactment of images produced by popular culture, the works of community art featuring narratives of popular culture content are just as noteworthy.

Today, public art is full of various types and discourse,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public sculpture and community art, elitism and popularism, and there are both net and adverse functions related to it. In particular, understanding the depth and base of popular culture is essential, just as "the popularization of everyday life" in public art was actually ahead of theory. At the point of juncture with popular culture, in order to move away from today's public art's tendency to focus on "excessive popularism", we will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various subculture and minority popular culture that the public shares in their live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tangible image of popular culture produced by the media.